

Hong Seung-Hye

홍승혜

24 Apr

On the Move
이동 중

14 Jun
2026

움직임에는 노래가 필요하다

어릴 적부터 노래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영화를 보면 항상 눈물이 났다. 내가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1965)》을 열 번도 더 봤던 이유이다. 폰 트랩 대령과 아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장면들. 《코러스(Les Choristes, 2004)》도 그 중 하나이다. <네가 가는 길 위에 그들을 보라(Vois sur ton chemin)>라는 아름다운 선율의 주제곡이 마음을 적시는 이 영화에서, 방황하던 소년들은 합창을 통해 우정과 신뢰로 하나가 된다. 감동은 움직임이다. 뭔가가 움직인다는 건 기적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무엇이 멈춰 있던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이번 전시 《이동 중(On the Move)》은 작업이 디지털 세계로 진입한 이후 겪어온 기하학적 이미지의 움직임에 관한 보고서이다. ‘유기적 기하학’의 초기 평면 작업에서 느껴졌던 환영적 움직임은 그동안 애니메이션, 퍼포먼스와 같은 실제적 움직임으로 진화해왔다. Ctrl-Z를 사용해 처음으로 도형의 실제적 운동성을 경험하면서 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배워야만 했다. A위치에 있던 도형을 B위치로 옮기고 create tween을 처음으로 실행했던 순간, 서서히 이동하는 대상을 보며 흥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도형이 드디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이미 감동이었다.

본디 그림은 신체가 움직이는 궤적이고, 그 신체는 뭔가의 부름에 복종하게 된다. ‘새가 노래하듯 그림을 그렸던’ 끌로드 모네는 그 노래가 붓질이 되었다. 색과 선이 화음이자 박자였던 동서고금의 수많은 미술가들은 음악을 동력으로 삼았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호로비츠는 ‘궁극의 음악은 노래다’라고 단정했다. 그 노래에는 가사가 없을 수도, 심지어 소리가 없을 수도 있다. 들리지 않는 내면의 운율에 맞춰 도형을 그리던 나는 어느덧 모두가 함께 들 수 있는 구체적 소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또 다시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안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노래일까? 노를 젓거나 모내기를 할 때, 망치질을 하거나 그물을 당길 때, 노동요는 작업의 메트로놈이 된다. 고된 현실을 완충하고 소속감을 자아낸다. ‘우리 모두’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장치이다. 한편, 노래는 기억이 숨 쉬는 방식이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노래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노래는 표현이다. 누군가가 그런 내 작업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성공이고, 누군가가 눈물 짓는다면 이는 최상의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다리고 있고, 노래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움직인다는 건 살아 있다는 증거이자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11일
홍승혜

Movement calls for music

Since childhood, films—especially those in which people are brought back together through music—would always bring me to tears. That’s why I watched *The Sound of Music* (1965) more than ten times—especially the moments when Captain von Trapp and the children begin to open up to one another. The French film *Les Choristes* (2004) is another such example. With its beautiful and moving theme song “Vois sur ton chemin,” troubled boys come together through singing, forming bonds of friendship and trust. Emotion is movement. Someone once said that to move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What makes something stationary begin to move?

This exhibition, *On the Move*, is a comprehensive review on how movement has informed my geometric imagery since I began working with digital tools. The sense of movement suggested within my early two-dimensional works including *Organic Geometry* has gradually developed into real movement through animation and performance. When I first saw a shape shift on the screen through the power of “Ctrl-Z,” I couldn’t help but learn how to choreograph movement in order to observe this transformation. I remember the moment I moved a shape from A to B and first used “create tween”. I vividly remember how thrilling it was to watch a still image come to life was thrilling. Movement itself was already deeply moving.

A painting is, at its core, the trace of a moving body. And that body responds to a call from within. Claude Monet, who “painted as in the way birds sing,” turned that song into brushstrokes. For countless artists across time and place, color and line have worked like harmony and rhythm, with music as their driving force. Pianist Vladimir Horowitz once said that “the ultimate music is song.” Such a song may have no lyrics, or even no sound at all. Drawing shapes in response to my own inaudible inner rhythm, I eventually began to create sounds that could be shared, and those sounds are now part of my choreography. Once again, they’re the basis of the image’s movement.

Why, then, song? When rowing or planting rice, hammering or pulling in nets, work songs become a metronome for labor. They ease the weight of harsh realities and foster a sense of belonging. They are a beautiful device that calls to mind a sense of “us.” At the same time, song is how memory breathes. No one can sing of what they have neither experienced nor known. Song, therefore, is an act of expression. If someone can smile at my work, that is a great success for me; if it brings someone to tears, that is the greatest success I can fathom. And so, even today, I wait and move to song. To move is proof of being alive—and above all, of being in an “organic” state.

February 11, 2026
Hong Seung-Hye